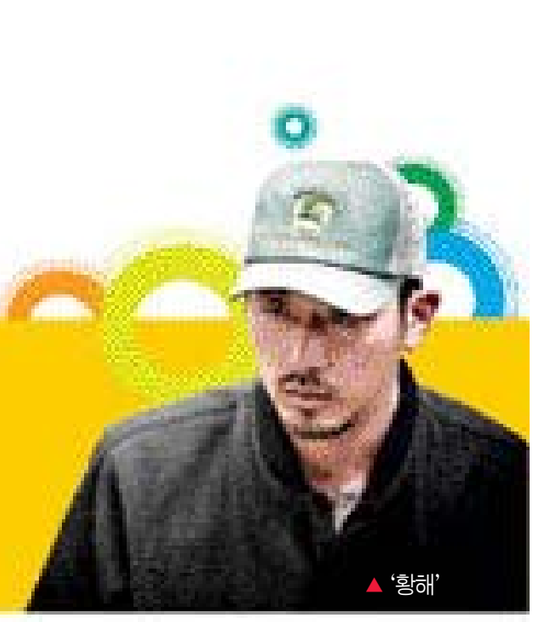
2010년 충무로 스릴러에 빠지다

▼ '심야의 FM'

▲ '베스트셀러'

▲ '이끼'



▲ '황해'

최민식·이병헌·엄정화 등 명배우들 김지운·강우석 등 명장들과 손잡고 관객 몰이

지난 2008년 탄탄한 스토리가 뒷받침된 '추격자' '세븐 데이스' 등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스릴러 장르는 충무로가 주목하는 장르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작품이 드물어 아쉬움을 남겼다. 2010년 충무로는 다양한 스릴러 영화를 통해 관객몰이에 나선다.

'악마가 보인다' '이끼' '황해' '베스트셀러' '심야의 FM' 개봉 대기

최민식·이병헌·김윤석·엄정화 등 톱 클래스 배우들과 김지운, 강우석 등 명장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악마가 보인다'는 사이코패스에게 약혼녀를 잃게 된 남자가 범인을 추격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오랜 휴지기를 거쳐 지난해 전수일 감독의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낸 연기파 배우 최민식이 여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이코 패스 역으로 출연한다. '아이리스'로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한 이병헌이 그를 추격하는 정보국 요원으로 호흡을 맞춘다.

윤태호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스크린에 옮긴 '이끼'는 비밀스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을 배경으로 살인과 관련한 비밀을 캐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아버지 죽음에 의심을 품고 비밀을 파헤치려는 주인공 류해국과 살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장 천용덕, 그리고 이상한 기운의 마을 사람들이 얽히는 영화로 정재영이 천용덕 역을 맡았다.

윤작가가 웹툰 연재 당시부터 주인공 류해국 역으로 박해일을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밝혔던 박해일과 유준상·유해진 등 연기파 배우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감독은 '공공의 적', '실미도'의 강우석이다.

'추격자'의 히로인 김윤석과 하정우, 그리고 나홍진 감독은 '황해'로 다시 뭉쳤다. '황해'는 궁핍함에 내몰려 살인자가 된 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남자와 살인청부 브로커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전우치'를 마친 김윤석은 잔혹하고 비정한 살인청부 브로커로 분하며 다양한 영화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하정우가 짝패로 출연한다.

올 충무로는 남성 영화가 강세인 가운데 당당히 영화를 이끌어 가는 여배우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가수로, 연기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엄정화는 '베스트 셀러'를 통해 스릴러 영화에 도전한다. 주로 도회적인 여성역을 주로 맡았던 엄정화가 '오로라 공주'에 이어 다시 한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표절 혐의를 받고 심기일전을 위해 시골마을로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모호한 마을의 비밀을 추적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상대 배우는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류승룡이다.

'불꽃처럼 나비처럼'을 통해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연기했던 수애는 라디오 DJ로 변신한다.

수애는 '심야의 FM'에서 아픈 딸의 목숨을 담보로 전화를 걸어온 청취자와 숨막히는 두뇌 싸움을 벌이는 싱글맘 역할을 맡았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수애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DJ라는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 낼지 기대감이 높다.

그녀와 대결을 벌이는 동수 역으로는 유지태가 캐스팅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평행이론

서로 다른 시대의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을 반복한다는 가설인 '평행 이론'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다.

100년의 시차를 두고 흡사한 정치 행로를 걷다 암살당한 미국 대통령 링컨과 존 에프 케네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냉정한 판결로 이름을 날린 전도유망한 법조인 김석현 판사는 최연소 부장 판사에 임명돼 축하 파티를 열던 날

다른 시대 같은 운명 참극막기 고군분투 지진희 주연 맡아

'네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는다. 며칠 뒤 석현의 아내가 잔인하게 살해되고 살인의 배후를 찾던 석현은 30년전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 남자의 일가족이 모두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석현은 참극이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지진희가 주연을 맡았으며 이종혁·하정우·윤세아, 연극배우 오현경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공포영화 '어느날 갑자기 : 네번째 층'을 연기한 권호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